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달의 찬양 -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전은주

G C/G D/F# G C G/B Am7 D7
 오늘 이곳-에 - 계신성-령님 우리 에게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

G C/G D/F# G C G/B Am7 D
 달 힌 우리-맘 -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

G Am7 G/B E7(b13) Am7 Am/G Fmaj7 D
 주님보 - 다 - 앞서지않 - 고 - 겸 손하게 - 주님의말씀 기다리니 -

G Am7 G/B C G/B Am7 D7 G
 주님손 - 에 - 우릴 드립니다 - 사 - 랑으로 - 인도하소서 - *Fine*

Em B/D# Em/D A/C# Am7 G/B C D E7
 창조하-신-모습 떠난우-리를 - 예 수님앞게 빛으소서 - 주님보

2022년 6월 6일(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자!

찬송 183장

고전 2:1-11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4절)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학문과 지혜로 전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성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중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도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가 믿음을 갖게 하려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게 합시다!

* 질문: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하기를 원하나요?

* 기도: 주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7일(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찬송 187장

에스겔 11:14-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행26:25)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으나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상태입니다. 이로서 다시 한 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 율법수호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자'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빛의 일로 인하여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하늘로부터 부여 받았고 지금 사도로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곧 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 질문: 누군가에게 참되고 온전한 말, 곧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 기도: 주님! 내가 전하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참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8일(수)

성령의 사람

찬송 390장

민수기 24:1-24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말씀할 어기고 선악 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13절)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모압왕 발락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 그들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발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더욱 진진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강한 손과 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 질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을 점검하십니까?

* 기도: 주여, 말씀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9일(목)

앎과 믿음
찬송 191장

에베소서 1:17-1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17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앎’ 또한 같이 가야 합니다. 앎이 없는 믿음은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믿음에 앎을 더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성숙을 위해 바울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앎이 균형을 이루고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시는 송암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10일(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찬송 182장

에베소서 4:1-6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3절)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성령이 평화의 줄로 한데 묶어 이루신 하나 됨을 지키라는 당부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인 만큼 성도들을 향해 하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의 분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분열과 싸움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됩니다. 분열을 거듭해 온 한국교회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간에 분열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 질문: 내 주변에서 성령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 기도: 주님,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낮게 여기며 서로 하나임을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11일(토)

지혜가 제일이니
찬송 309장

잠언 4: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터를 놓고 하늘이 견고히 세울 때도 ‘지혜와 명철’로 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단이나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을 아는 지식이 세상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지 늘 모르듯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도 모르고 지혜와 명철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가 먼저다.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쳐 참 생명 가운데 살게 하라. 지혜가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떤 학위나, 정보를 많이 얻는 요령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비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 질문: 지혜란 무엇입니까?

* 기도: 주님, 지혜를 얻고, 가르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2022년 6월 12일(주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찬송 310장

이사야 55:10-13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11절)

아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술을 창조하셨기에 당연히 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 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비가 땅을 적셔서 땅에 소산을 내고 종자와 양식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 기도: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